

油價조정 片片想

李昌載

(쌍용정유 업무과장)

1. 머리말

『권력은 지식인이 자기를 합리화시켜주되 자기의 권위를 억누르지 않기를 바라며, 지식인은 권력이 개체로 나타나지 않고 추상적인 정의로만 나타나길 바란다. 권력은 결국 권력을 남용함으로써 자기가 이성이면서 동시에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구체적인 실증을 보고져 한다.』 TV에 비쳐지는 청문회를 보면서 어느책의 한귀절이 머리에 떠오른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전환기의 우리네 사람들은 오늘도 현실과 이상의 갈등 속에서 고통을 느끼고 있으며 최선의 대책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다. 어느것이眞이고 어느쪽이 옳인지 단순하게 판별되어지는 것은 없다.

기득권과 혁신이, 권위주의와 인권이, 생산성추구와 분배의 정의가 서로 얽혀 있으며 시간의 흐름과 함께 대립의 정도가 심해지지만 한다. 筆者는 감히 바로 이 시대를 사는 지혜로서 맹자가 설과한 바 있는 中庸을 제시하고자 한다. 中庸은 현대말로 바꾸어 표현하면 均衡이요 調和요 緩衡일 것이다. 많은 지식과 인격, 그 모든 덕목들은 中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국내 유가인하와 관련하여 정유사의 일원으로서 소감에 대한 원고청탁을 받고 筆者는 막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선 소감이랄게 특별히 없는데다가 신물나는 油價애기를 늘어놓아야 한다는 데에 더욱 그렇게 느껴졌다. 한담이나 실컷 나누었으면 좋으련만 다음번에는 한담나눌 시간이 충분히 주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筆者는 그동안 유가조정과 관련하여 지녀왔던 제반생각들을 片片想으로 엮어본다.

2. 油價제도의 변천

어떤 사안에 접할 때 먼저 과거를 돌아다 보는 것이 현재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유용한 방법론이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가격제도의 변천사에 대해 자료도 부족하고 잘 알려져 있지도 않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국내석유가격제도가 어떤 변화를 겪으면서 지금으로 이어졌는지 간단히 살펴 보기로 한다.

대한석유공사가 준공되기전, 그러니까 1964년이전까지 우리나라 석유제품가격은 정부가 외국으로부터의 수입비

용을 감안 그때그때 달러화로 고시하였으며, 물량은 배급제로 운영되었다.

그러던 것이 64년 油公의 가동으로 최초로 정유사의 생산비용을 감안 중앙 정부가 공장도가격을 원화로 고시하는 체제로 바뀌게 된다. 당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중이었기에 유통단계별 가격은 각 지방장관에 위임되어 있었던 것이 특이한 사실이라 하겠다.

하지만 당시는 단일기업원가에 의한 고정가격체제였으며 1969년에 이르러 호남정유의 가동으로 정유산업이 경쟁가능산업이 됨으로써 가격체제도 고정가격체제에서 최고판매가격고시체제로 변화하게 된다. 그리고 1972년 지역별 석유가격 차등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전국균일수송제도(UTC씨시스템)를 채택, 현 가격제도의 기틀을 다지게 된다.

그후 1,2차 석유위기를 겪으면서 석유정책은 경제성보다는 물량확보가 우선이 되었고, 이로 인해 1979년 원유가평준화제도 및 석유사업기금제도를 최초로 시행하게 된다. 즉 기준원유가격과 실도입단가의 차액을 안정기금으로 징수하고 비축을 위한 비축기금을 징수하게 된다. 원유가평준화제도는 82년 OPEC의 가격카르텔이 약화되자 폐지되었고, 석유사업기금제도만 계속 남게 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81년 유가자율화의 시초로서 제트油 및 용제가격이 자율화되었고, 85년 7월 나프타가격의 국제가연동계 실시, 88년 11월 아스팔트가격자율화실시등 유가자율화를 위한 시험적 시도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결국 앞으로의 국내유가제도의 향방은 자율화를 얼마나 수용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으며,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하겠다.

3. 국내 油價수준과 자율화

오르는 것으로만 인식돼 왔던 기름값이 지난 86년 이후 6차례에 걸쳐 약 50%나 내렸다. 물론 오를 때에는 큰 폭으로 올랐고, 내릴 때에는 작은 폭으로 여러번에 걸쳐 내린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같이 물가안정이 시급한 경제현안인 상황에서 유가인하가 일조를 하게 된 것은 여간 다행스럽지 않다.

그러면 우리 국민은 현 국내유가기준으로 볼 때, 주변 국가보다 저렴한 수준에서 기름을 구입하고 있는 것이며, 더 가격을 내릴 여지는 없는 것인가? 아예 기름값을 정

부통제로부터 완전 자율화한다면 더 내려가지 않을까 등 많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말해 현재 우리나라 기름값은 휘발유를 제외한 전유종가격이 일본등 주변국가들보다 싸다. 조세공과금을 차감하여 비교하여도 싼 것이다. 무엇 때문일까? 筆者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가격자율화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日本의 유통마진이 우리나라 수준이라면 日本의 유통업자들은 구호기금을 받아야 하는 저속독자로 전락되어 버릴 것이며, 우리같은 정제비수준이라면 日本의 정유사들은 재투자는 커녕 운영재고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정부가 최고가격으로 통제하고 그 가격내에서 정유사간, 유통업자간 원가경쟁을 유도해냄으로써 균살하나 없는 알뜰한 석유가격이 형성된 것이다. 바로 이점에 대해서 긍정적인 재평가가 있어야 하겠으며 유가자율화에 대한 맹목적 찬동만이 능사가 아님을 알아야 하겠다.

4. 油價인하와 정유사

사실 정유사의 입장에서 석유가격인하는 단기적 측면에서 볼 때에는 달갑지는 않은 것이다. 옛말에도 장사는 가격이 오를 때일수록 잘된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현 유가체제상 가격인하에 따른 수익 감소분은 원유가 인하등의 원가하락분과 상쇄될 수 있지만, 우리네 기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외형의 감소를 가져오고 자금압박을 또한 일으키기 때문이다. 외형의 감축은 외적 규모를 수축시켜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리며, 여러측면에서 영업활동을 제약하게 된다.

또한 정유사들은 자금난을 겪게 되는데 즉, 원유도입 대전은 상당기간 후에 결제되므로 원가인하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반면 국내가격 인하분은 곧바로 자금수입을 감축시키게 되어 자금부담이 발생한다.

이외에도 석유가격인하로 기존재고분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어 재고차손이 발생한다. 현재 정유사가 채택하고 있는 後入先出法(LIFO)에 의한 재고평가방법하에서는 이 재고차손이 곧바로 단기손익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서서히 기업의 손실로 나타나게 된다.

이처럼 단기적으로는 별로 달갑지 않은 油價인하이

만, 장기적으로는 수요를 증대시키고 정유사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등 좋은 점도 있다.

石油수요가 비록 단기적으로는 가격변동에 대해 비탄력이기는 하나, 지속적인 가격인하는 代替財간의 수요이동등을 통해 수요를 증대시키게 된다. 최근 10%이상의 수요증대도 가격인하와 무관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기름값 인하는 과거 석유가격의 폭등과 메이저의 횡포등으로 얼룩져 있는 정유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기실 현대사회에서 기업의 가치는 장기적 존속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며, 그것은 그 기업의 社會的 有用성에 바탕을 두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역할정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바 정유사 또한 사회적 유용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5. 石油의 連産性

石油은 어떤 특성을 지녔을까?

우선 石油은 현대경제체제에서 매우 중차대한 자원으로서의 특성을 지녔다. 石油은 근대사회의 특징인 산업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이므로 石油의 공급이 어려워지거나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대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며 우리는 1,2차 석유파동을 통하여 피부로 이점을 배웠다. 때문에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로서는 석유에 관한 한 항상 限界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 신문지상을 통하여 국내유가의 대폭적인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얘기를 접하고 筆者는 이점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물론 현재 징수하고 있는 석유사업기금이나 특별소비세의 인하를 통해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한 방법이기는 하다.

우리 국민은 남달리 망각이 심한 것이 특징이다. 아무리 흉악무도한 범인이나 사건도 한달만 지나면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네 기억력이다. 하지만 근본대책이 없는 한

에 있어서 석유파동의 개연성에 대비하는 슬기가 필요한 것이다.

가격인하를 능사로 알게 되면 과도한 石油소비를 유발시키게 되고, 결국 체질이 石油多消費型으로 전환되어 장차 크나큰 문제가 될 것이다. 최근의 잇단 油價하락과 함께 연 10%이상의 석유소비가 증대하고 있음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石油은 이러한 특성 이외에 또 다른 특성이 있다. 바로 제품생산의 連産性이다.

원유를 도입하여 석유정제시설에 투입하여 처리하게 되면 나프타유분, 등유, 경유, B-C油 등의 석유제품이 연쇄적으로 산출되는데 이것이 石油 고유의 특성인 제품생산의 連産性이다. 이러한 이치는 소 한마리로부터 일 정분의 등심·안심·갈비 등이 연쇄적으로 산출되는 것과 같다.

바로 連産性으로 인해 국내석유수요구조에 적합한 기름을 공급하기 위해서 정유사는 일정량의 원유도입의 에도 부족한 석유제품(경유/나프타)을 수입하게 되며 또한 불가피하게 생산되는 일부 석유제품(B-C油등)을 수출하게 된다.

이때 정유사의 이러한 경제적 믹스 선택에 영향을 주는 변수에는 外生的 요인으로 국제원유가격과 국제석유제품가격이 있으며 內生的 요인으로는 國內石油製品價와 석유사업기금과 같은 租稅公課金이 있다(경제성분석시 흔히 사용되는 Linear Programing도 이분야에서 태동된 것임).

따라서 內生變數인 國內石油製品價格과 租稅公課金이 국내석유수급의 패턴과 경제적 조달여부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석유에서 파생된 모든 문제들은 결국 油價行政으로 귀속되어지는 것이다. 석유를 아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것도 이 連産性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부터 출발함을 전하고 싶다. ☐

